

## 영어 공용어론의 정치적 의미

김영명

한림대학교 교수 · 정치학, 한글문화연대 대표

지금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영어 공용어론은 미국 패권주의의 일부이며 그 지역적 발현이다. 그것은 잘못된 언어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방법론에 입각한 잘못된 논리일 뿐이다. 잘못된 언어관이란 언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만 보고 그것이 가진 사회, 정치, 정신적 의미를 무시하는 편협한 언어관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편협할 뿐 아니라 약자에 대한 강자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인류 사회의 발전을 경제적 효용에서만 찾는 어리석은 가치관 위에 서 있다. 또 영어 공용어론은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되는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영어를 공용어로 해야 한다는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기 때문에 방법론으로도 무척 잘못되었다.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어 교육 방법을 바꾸어야지 실현 불가능한 공용어론에 매달리는 것은 그 주창자들이 금과옥조처럼 되뇌는 효율성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면 이렇게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주장인 영어 공용어론이 왜 각종 여론 조사에서 반대보다는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여론 주도자들이 이를 선전하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여론 주도자들인 다름 아닌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영어 문서와 서적을 매일 접하는 고위관료, 기업인, 언론인, 각종 전문가들이다. 그들이

영어 공용어화를 선전하는 이유는 그들이 내세우는 각종의 여러 가지 국가 발전의 명분 때문이 아니라—그들은 정말 그렇다고 믿겠지만—영어가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배력이 확고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들은 세계자본주의 구조에 뿌리박은 사회의 지배층으로서 영어 지배의 세상이 바로 한국의 발전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국내외의 지배 구조, 세계 차원과 국내 차원에서의 계층화·계급화가 영어 공용어라는 구체적인 쟁점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우리가 영어 공용어론의 정치적 측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 1. 언어와 권력, 부, 지위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 아니라 사회적 지배의 수단이다. 실제로 이들은 연결되어 있다. 사회적 지배의 한 중요한 통로가 의사소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사회와 국민을 지배한다. 정치적 선전이 언어를 통한 지배의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이보다 더 직접적인 지배의 방법이 있다. 그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쓰는 특정 언어를 금지하고 다른 언어를 강요하거나 장려하는 일이다. 언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은 결속을 다지기 때문에, 특정 언어를 금지함으로써 그 언어 구사자들의 정치사회적 존재를 약화시킨다. 스탈린이 소비에트연방 설립 후 민족어 문제에 고심한 것이나 영국과 미국의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토착 언어를 말살하려 했던 것이나 일본 식민 통치자들이 조선어의 사용을 금지한 것들이 다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조선의 피압박자들이 말과 글을 지킴으로써 민족의 생존을 도모했던 것도 같은 이유, 곧 말이 민족 정신의 표상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제국주의적인 언어 탄압은 요즘 와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온누리에서 계속되고 있다. 남태평양과 북미 대륙의 수많은 소수 언어들이 급속한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이들 나라에서 중앙 정부가 소수 민족과 소수 언어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억압의 형태는 많이 사라지고 경우에

따라 정부의 소수 언어 장려 정책이 있기도 하지만, 경제 개발과 사회적 통합을 우선하는 중앙 정부들의 정책 기조가 소수 언어의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 대략 6000개 정도 남아 있는 세계의 언어들이 21세기가 지나기 전에 반 이상 또는 추산에 따라 90퍼센트가 사라지리라고 예상되고 있다. 환경 파괴에 따른 동식물 종들의 급속한 소멸과 마찬가지로, 언어 환경의 오염에 따라 수많은 지구 문화 유산의 보고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 영어의 파괴력은 다른 어느 언어보다 더 가공할 만하다. 영어는 17세기 무렵까지만 해도 프랑스어의 침투와 지배를 받았지만, 그 뒤 영국 제국주의의 눈부신 팽창과 함께 세계어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대영제국의 영광은 곧 영어의 영광이었고, 대영제국의 침탈은 곧 영어의 침탈이었다. 이러한 영어의 패권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 20세기에 와서 더 강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세계 경찰과 보호자의 역할을 자처한 미국은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미국의 언어와 문화, 가치관을 대대적으로 수출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서 영어와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치관을 습득하고 그에 매료되었다. 처음에는 유럽과 제3세계에 대한 군사·경제 원조를 통해서, 그 뒤에는 문화 산업과 영어 산업을 통해서, 또 급속히 팽창한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미국의 말과 가치관이 온누리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를 파고들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미국 문화의 침투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론에 힘입어 한층 강화되었다. 자유주의란 간단히 말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요시하는 이념이다. 유럽에서 왕권과 귀족권에 반항하여 신흥 상공인계층이 경제·정치적 권리를 부르짖으면서 탄생하고 발전한 것이 자유주의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진보적인 이념이었다. 그런데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계급이 성장하고 사회주의와 같은 평등의 이념이 성장하자, 자유주의는 상공인 부르주아지들이 이에 대항하여 그들이 지배하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 보수적인 이념으로 변질하였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어 자유주의는 타협하고 분배와 복지의 이념을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복지 사회가 위기에 처하자 그 반동으로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시장 원리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 즉 신보수주의가 공격적인 이념으로 득세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 바로 '세계화론'이다. '세계가 하나로 된다'는 서술로서의 세계화론은 금방 '세계가 하나로 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를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미국을 말한다. 시장 원리에 따라 세계의 문물—자본과 상품과 기술과 문화와 제도와 가치관이 자유로이 돌아다녀야 한다는 논리는 곧 돌아다닐 힘과 돈이 많은 쪽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강자 지배의 논리가 되어버린다. 세계화가 진정한 세계화가 아니라 미국화가 되고 마는 것이 바로 이 까닭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의 세계화라고 할 때 곧 미국의 가치관 습득을 의미하게 되고, '글로벌 에티켓을 익히시다'라는 주류 신문의 선전은 곧 '미국의 예절을 몸에 익히시다'라는 말이 되어 버린다.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는 '미국식 경영을 하자'는 말이 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자는 말은 곧 '미국의 기준에 맞추자'는 말이 되고 만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화가 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영어를 익히는 것이다. 아니 익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모국어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모국어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영어 사용 능력이 세계화 시대에 필수라고 선전되고, 여기에 정부와 언론 기업 할 것 없이 사회의 상층부 세력들이 온통 나서서 국민들의 혼을 빼놓고 있다.

이런 영어 선전에 결정적인 구실을 하는 것이 포드재단, 브리티시 카운슬 등 영어를 세계에 전파하는 미·영의 기관들이고, 경영에는 국적이 없다고 선전하는 세계기업들이다. 지금 영어 산업의 매출액은 전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고 있다. 영어 수출국들에서는 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고, 수입국 역시 세계화의 명분으로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영어 지배에는 과거의 직접적인 식민 통치에 비해 상업적 이해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어 공용어를 주장하거나 영

어 능력을 강조하는 곳들이 영어 전문가들, 영어 학원들, 영어 교재 장사들, 기업들, 주류 언론들(이들 역시 영어 장사에 가담하고 있다)임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영어는 권력의 원천일 뿐 아니라 부의 원천이기도 하다.

또 영어는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되었다. 이전에 한문이 사대부와 양반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영어로 간판을 달거나 영어를 몇 마디 섞어 쓰는 것이 부와 지위의 상징이 된 것이다. 그래서 '부티 나는' 곳일수록, 또 돈 많은 사람이 찾는 물건일수록 한글보다는 영어가 더 많이 섞여 있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져서, 거리의 간판이나 아이들의 과자에 이르기까지 비싸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위해 영어와 영문자를 점점 더 많이 쓰고 있다. 바야흐로 영어의 공용어화가 실제로 시작된 단계에 있는 듯하다.

이렇게 볼 때, 영어를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로 보고 이 도구를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말은 너무 근시안적인 말이다. 영어는 영국과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도구이며, 한국의 지배층이 그 지배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도구이다. 다시 말해 영어는 지배층의 지배를 위한 도구이다.

## 2. 영어 공용어론이 나오게 된 배경

영어 공용어론이 처음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1998년 복거일이라는 사람이 조선일보에 시론을 쓰면서부터였다. 그런데 무심코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이 시론이 논란의 핵심이 된 것은 조선일보가 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말은 누구나 한번쯤 해 볼 권리가 있고, 이런 말들도 신문에 나고 하는 것이 사회의 다양성을 위해 좋다고 본다. 하지만 그 뒤 영어 공용어론이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신문 방송에서 떠들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한마디 거드는 꼴을 보면, 우리 사회가 역시 성숙치 못한 냄비 사회라는 생각이 아니 들 수 없다. 일본에서 작년에 총리 자문기구가 영어공용어화의 장기적 고려를 건의했다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조용한 이 일에 대해 한국의 신문들이

호들갑을 떠는 것 또한 정신적 빈약함의 반영일 뿐이다. 그러니 영어 공용어론이 나오게 된 한 근본 원인은 우리 정신의 빈약함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우선 아무리 영어 지배의 세상이라고 해도 영어 ‘공용어론’이 화제가 되는 나라가,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보자. 이 두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20세기 후반기에 경제성장을 가장 잘 하여 세계의 칭찬을 받은 두 나라다. 또 한 나라가 있다면 대만일테고 그 뒤를 중국이나 동남아 나라들이 줄을 잇는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세상에서 영어를 가장 못하는 축에 든다고 한다.(사실 그 말도 믿기 어렵다. 러시아 사람들도 영어 잘 한다고 믿기 어렵다. 중국인들 12억 중에서 11억 5천만 명은 우리보다 영어를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영어 못 하는 나라가 세상에서 경제 발전은 가장 잘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영어 못해서 큰 일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일까? 이 두 경우가 바로 경제 발전과 영어능력 사이에는 별 관계가 없다는 증거가 아닐까? 지금 세계에서 경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 엘리트들의 영어 실력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어 공용어화는 상상 밖이고 정부의 중국어 중시 정책은 우리의 국어 정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알차다.

한국과 일본에서 영어 공용어론이 나온 것은 실패 때문이 아니라 ‘성공’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영어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해도 지금까지 경제발전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그 발전이 한계에 부딪치고 세상은 ‘하나로’ 되었으니 이제는 영어 없이는 또다른 돌파구를 열 수 없다는 믿음이 다수 상류층 인사들에게 생긴 것이다. 이들이 믿는 한 전제는 과거와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세계화 시대고 정보의 시대이니 영어가 필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참으로 모호하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그냥 느낌으로만 하는 얘기다. 정보화 시대가 되어 영어를 더 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번 검토해 보자. 그것은 정보화 시대에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인터넷 문서들의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비율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맨처음에야 미국에서 시작했으니 물론 100%가 영어였을테지만, 이제 그 비율은 50~60%밖에 되지 않고, 머지 않아 중국어에 그 자리를 내주리라고 한다. 어쨌든 비율이야 그렇다 치고, 정보화 시대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전보다 더 영어를 많이 읽고 쓰고 말해야 하게 되었는가? 물론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생겨 외국인들과 대화할 기회가 더 많이 만들어졌으니 영어를 잘해서 편리할 경우가 더 많아진 것이 사실이겠다. 그러나 그것하고 영어를 '반드시' 잘해야 한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

창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벤처 회사에 다닌다. 그는 컴퓨터 게임도 좋아하고 인터넷 검색도 좋아한다. 그래서 여가 시간 대부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낸다. 여기저기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보니 참 재미있고 유익하다. 그런데 그 창수가 왜 꼭 영어 사이트를 검색하고 영어로 외국인들과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할까? 국내 사이트만 돌아다녀도 재미와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란다. 물론 영어를 잘 해서 미국의 예쁜 수잔과 채팅도 하고 영어 자료들도 많이 검색해 읽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 그러나 그 이유 때문만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영어를 배우기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창수는 회사에서 시켜서 외국인과 상담을 하게 되었다. 영어를 못하는 창수는 매우 곤란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회사를 그만 두었다. 창수가 영어를 잘 해야 할 이유는 위와 같은 경우 때문이다. 이 이유도 정보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창수가 영어를 잘 해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런데 외국인과 상담을 해야 할 사람, 아니면 다른 직업상의 이유 때문에 영어를 꼭 잘 해야 할 사람이 한국 국민 전체의 몇 퍼센트나 될까? 나는 생산 활동 인구의 약 5퍼센트, 성인 전체 인구의 1~2퍼센트면 된다고 본다. 나머지 20퍼센트 정도는 잘 하면 좋고 못 하면 할 수 없고, 나머지 성인의 70퍼센트 정도는 전혀 잘 할 필요가 없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가 되었으니 영어를 잘 해야 한다는 말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근거가 없는 말이다.

그러면 이런 근거 없는 말이 왜 힘을 행사할까? 그것은 영어의 패권 때문

이다. 영어 패권은 위에서 본 대로 세계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 모두에서, 둘의 밀접한 연계로 강화되고 있다. 영어의 팽창으로 이득을 볼 사람들은 미국-영국-한국의 정부, 기업, 주류 언론, 그리고 각종 전문 지식인들이다. 이들이 각 사회의 권력과 부와 지위를 장악하고 있다. 영어로 표상되는 권력과 자본주의적 가치관에서 그들은 하나의 계급을 이루고 있다. 이 지배 계급은 자신의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영어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 북거일은 시장경제 신봉자로서 이러한 지배 계급의 선전가를 자처하고 나왔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지배 계급의 핵심기관으로 영어 선전에 동정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조선일보는, 자신이 '텡스'라는 영어 시험 제도를 만들어서,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도 영어 선전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가 다른 주류신문들에 비해서도 유독 친미 사대주의적임을 감추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기업들이 사원들에게 영어를 강요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간다.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원들이 영어를 잘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세계적인 기업'의 사원들 중에서 실제로 영어를 사용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정확히는 몰라도 아마 이 또한 소수일 것이다. 다시 말해 열 명의 영이와 순이가 (요즘은 영어로 회사 이름을 지으니까) SOB라는 회사에 들어갔을 경우, 그들 중 외국인들과 영어로 상담하거나 영어 문서를 작성해야 할 처지에 놓일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마 두세 명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기업들은 영어 우선으로 직원을 뽑는다. 모든 대기업들이 다 그러니 우리의 대학생들은 전공은 때려치우고 영어 공부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다. 아니 대학생들은 고사하고 영어 선전극에 겁먹은 엄마들이 고사리손을 붙잡고 원어민 영어 학원과 영어 이민으로 내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 필요에 비해 지나치게 나아간 영어 선전과 영어 강박증이 온 국민을 일종의 집단 히스테리로 몰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낭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위 사람들을 반드시 피해자로만 볼 수는 없다. 이들 또한 사회의



중·상층 이상에 속하는, 지배층이거나 이에 속하기를 열망하는 층으로서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영어 귀족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내재한 ‘한국인이고 싶지 않은’ 탈민족-친미 콤플렉스와 ‘서민과는 다르고 싶은’ 엘리트 콤플렉스를 언론과 기업과 정부의 때로는 교묘하고 때로는 거친 영어 선전이 만족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영어 강박과 상승 지향의 만족 사이에서 일종의 자학-가학 (매조-새디즘)의 복합 심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 3. 영어 공용어론의 문제점

영어공용어론이 가진 문제점은 술하게 많지만, 무엇보다 그것이 비현실적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해야 한다. 무릇 공용어란 공공 영역에서 쓰는 말이고 더 나아가 공공 영역에서 ‘써야 하는’ 말이다. 공문서와 언론, 방송, 교육, 행정, 사법, 입법의 모든 분야에서 공적으로 써야 하는 말이다. 그러니 한국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해야 한다는 말의 어처구니없음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공용어는 복수의 언어 사용자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특정 언어 사용자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보듯이 다민족, 다언어로 구성된 국가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영미의 식민지 출신 나라들로 다양한 토착어와 엘리트층의 영어가 공존하는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이미 복수 언어가 주민 집단들의 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그래서 영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주민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인위적으로 영어를 공용어로 만든다는 것은 있어 본 적도 없고 가능한 일도 아니다. 영어 공용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공용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아도 대개의 경우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용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많은 경우 공문서를 필요한 경우 영문으로

도 작성하고 방송을 영어로도 하며 특정 구역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한글 공문에도 영문자를 섞어 쓸 수 있게 하며 거리 표지판에도 영어를 병기하자는 주장 정도이다. 또 이를 위해 영어 교육을 대폭 강화하자는 것이다. 물론 북거일의 경우 한국어를 없애고 영어를 모어로 하는 단계로까지 가자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원래 흥분하여 넘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니 그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된다.

따라서 진정한 문제는 영어를 공용어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니), 영어가 조금씩 조금씩 한국어와 일상생활에 파고들어 부분적인 공용어의 구실을 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도로 표지판에서 로마자의 크기가 훨씬 커지고 한글의 크기가 작아졌다. 새로 지은 인천공항의 표지판에는 영문자가 차지하는 면적이 한글과 한자를 합친 면적과 같다. 김포공항이나 나리타, 베이징 공항 어디도 그렇지 않다. 거리의 각종 간판에는 영문의 비중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정부 각부처의 부서 표시판에도, 병원 안내판에도 영문 표기가 병행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심지어 외국인과 전혀 관계 없는 병무청이나 거의 관계 없는 경찰청 강력계, 세무서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었다. 정부 부서의 상징표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영어가 한글보다 훨씬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세계화 시대에 외국인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 외국인과는 관계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영어 병용이 실제로는 내국인들의 병용으로 변질되어, 영어의 부분적인 공용어화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더 큰 보기들을 든다면, 대학에서 영어 강의를 의무로 하고 심지어 초등학교에 영어 전용 구역을 만드는 따위의 것들이 부분적인 영어 공용어화 실현의 증표들이다. 또 미국 유학파가 아니면 국내학파는 물론이고 심지어 유럽이나 일본에서 학위 받은 사람들도 취직 자리 구하기 힘들어지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실질적인 영어 공용어화의 결과는 의식의 사대주의화와 한국어의 쇠

되다.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장사하고 영어로 가르치며 영어로 글쓰기를 강요하는 세상이다 보니, 그렇잖아도 한문과 일본어의 공세 속에서 기형적인 발전을 해 온 한국어의 표현 능력이 크게 장애를 받고 있다. 웬만한 현대적인 문물은 영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편해지고 또 그렇게 하기를 강요당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한국어 어휘와 표현은 개발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있는 어휘와 표현마저 잡아먹혀 버리고 만다. 영어론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혹 안다고 해도 영어가 가져다 줄 은총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영어 공용어론의 또다른 문제는 그들이 숭상하는 ‘효율’을 제대로 따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선 영어가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영어를 잘 하게 되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소모되는 비용은 계산하지 않는다. 더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경제적 계산을 해 보아야 한다. (1)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기 위한 비용과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었을 때 생길 경제적 이득, (2) 영어가 공용어로 되었을 경우와 되지 않았을 경우의 경제적 이득의 차이. 이 둘 모두에 ‘영어 공용어가 되었을 때 생기는 경제적 이득’이 계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기 위한 비용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공용어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아예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교의 기준을 영어 공용어화보다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영어 열풍’ 정도로 잡아 보겠다.

(1) 영어 열풍의 비용이 과연 경제적으로 이익인가, 손해인가? 영어 열풍을 통해 영어 산업이 번창하니 국민 총생산이 오르는 것은 사실이겠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분명히 부정적인 경제 효과이다.

(2) 영어 열풍을 통해 국민들의 영어 실력이 지금보다 훨씬 향상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달리 표현하여, 지금 정도의 ‘낮은’ 영어 실력 때문에 우리가 감수하는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될까? 나는 매우 지엽적이라고 본다. 영어 미숙 때문에 중요한 사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든가 받을 돈을 받지 못하는 경

우, 또 영어 미숙 때문에 과학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되는가?

진짜 문제는 그 누구도 위와 같은 경제적 계산들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경제학자들은 효율성을 신봉하기 때문에 영어 공용어론에 기우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먼저 이러한 영어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여 제시해야 한다.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내 '추측'은 그들의 추측과는 달리 영어 열풍의 경제적 이득은 그 경제적 손실을 추월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문제가 비경제적인 부문으로까지 확대되면 말할 것도 없다. 국가 이익은 경제적인 이득만으로 따질 수 없다. 영어 숭배가 몰고 오는 정체성의 위기와 미국에 대한 예속은 경제적 이득으로 상쇄될 수 없다. 민족 문화의 창달은 경제적 이득과 관계없는 국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정치적 자주와 국민의 자존심도 마찬가지다. 미국화의 일방적인 길을 따르는 것이 세계화가 아니다. 진정한 세계화는 세계의 모든 문화와 문물이 다양하게 섞이면서 서로를 자극하여 발전하는 것이다. 영어론자들은 진정한 세계화론자가 아니다. 그들은 신자유주의적인 사대주의자들일 뿐이다.

영어를 통한 사회의 계층화와 위화감 조성은 또다른 정치적 문제이다. 영어의 지배력이 더 확대되면 영어를 잘하는 지배층과 못하는 서민층의 격차가 더 커질 뿐 아니라, 지역 갈등, 계층 갈등에 이어 언어 갈등의 사회적 균열 구조가 하나 더 보태진다.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더 심한 복합적 갈등으로 몸살을 겪게 될 것이다. 세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영어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지배층 또는 엘리트층이라는 사실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영속화하고자 한다. 가장 지배적인 신문인 조선일보가 가장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반복한이며 친미 사대주의적이고 영어숭상론자인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민중 대변을 자처하는 신문들이 영어를 덜 쓰고 한글을 더 많이 쓰는 것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세계 차원에서의 지배와

국내 차원에서의 지배가 한 몸이기 때문이다. 영어론자들은, 그 모든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강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패권주의자이거나 사대주의자들이다. 한국의 경우 그들은 안에서는 패권주의자이고 밖으로는 사대주의자들이다. 패권주의적 사대주의—언뜻 모순되어 보이는 이 말이 영어공용어론의 진정한 정체다.